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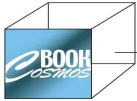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 예문

이 책은 미국 NIC(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들이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취합, 취사·선택하고 평가 분석해 매 4년마다 발표하는 미래 예측 보고서 「Global Trend」의 최신판이다. 트럼프 취임 후 5년간의 미래 전망과 2035년까지 20년간의 전망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www.bookcosmos.com

본 도서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인가를 얻어 (주)북코스모스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전재나 무단복제 및 전송을 금합니다.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NIC 미래 예측 보고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예문 / 2017년 2월 / 334쪽 / 13,500원

■ 저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 미 16개 정보기관들의 최고 수장인 국가정보국의 보좌 기구로서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세계 경영에 관련된 중장기 전략과 외교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의 정책수립에도 관여하고 있는 NIC는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국가안전보장국), DIA(국방정보국), NRO(국가정찰처)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들이 보내오는 정보를 취합해 평가·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행한다. 당면한 주요 이슈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미국 정부의 미래 전략을 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4년 단위로 발간해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는 1997년부터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역자 이영래, 이미숙

이영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리츠칼튼 서울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이수그룹 비서 팀에서 비서로 근무했으며, 현재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세계미래보고서 2055』, 『유엔미래보고서 2050』, 『위안화의 역습』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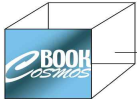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이미숙 -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번역에이전시 하니브릿지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핀테크 전쟁』, 『미래의 역습, 낯선 세상이 온다』, 『글로벌 트렌드 2030』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미국 국가정보국은 9·11 테러 이후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통합 지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은 CIA와 FBI 국장을 지휘한다. 이러한 국가정보국장의 직접 지휘 아래, 미국 정부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목표로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내외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국 산하 기관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이다. NIC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여하며, 외교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 책은 미국 NIC가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들이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취합, 취사·선택하고 평가 분석해 4년마다 발표하는 미래 예측 보고서 「Global Trend」의 최신판이다. 트럼프 취임 후 5년간의 미래 전망과 2035년까지 20년간의 전망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미국 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과 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리라고 예상된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이룩한 전례 없는 진보는 곧 어둡고 혼란스러운 미래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이 둔화되고, 기술의 진보로 고용 시장이 붕괴될 것이며, 국가주의와 테러의 위험은 가중될 것이며, 국가 간 충돌은 냉전 이래 가장 격렬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미래의 가능성을 조망하여, 미국 정부의 중장기 국제 정



책 밑그림은 물론, 생존과 성장을 위해 국가·기업·개인이 수립해야 할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 차례

발간사

정리하며_ 방법론에 대한 정보

제1부 진보의 역설과 미래 시나리오

한눈에 보는 미래 / 미래의 지도

PART 01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미래 트렌드

PART 02 머지않은 미래

PART 03 먼 미래를 위한 3가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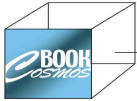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PART 04 미래 시나리오가 알려주는 것들

제2부 5년 후 미래 그리고 20년 후의 세계

2부에서 다뤄질 것들

PART 05 5년 후 미래 - 지역별 변화

PART 06 20년 후의 세계 - 주요 글로벌 트렌드



NIC 미래 예측 보고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예문 / 2017년 2월 / 334쪽 / 13,500원

제1부 진보의 역설과 미래 시나리오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미래 트렌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트렌드들: 최근과 미래의 트렌드들은 향후 20년 동안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기상 이변 등의 붕괴 조짐과 전례 없는 속도로 결합할 것이다. 이로 인해 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변화해 노동과 복지,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 부유한 세계는 노화하는 반면, 더 가난한 세계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남성화되고 있다. 또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해수면 상승, 홍수, 폭풍 해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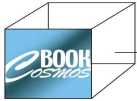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에 이끌리거나 경쟁의 공포로 인해 흔들리며 움직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량 자동화 같은 기술이 노동 시장을 파괴함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기술은 개인과 소집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치관과 국가주의, 그리고 종교는 사람들을 점점 분리시킬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중의 기대와 정부의 성과 사이의 격차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민주주의 자체도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개인과 소집단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기후 변화 같은 중대한 세계 문제에 대항하는 집단 행위를 조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새롭게 역량이 강화된 개인과 집단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제기관은 미래의 임무에 더욱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한편, 분쟁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전쟁은 갈수록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멀리서는 사이버 무기로, 내부에서는 자살 테러리스트를 이용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대기 오염과 물 부족, 기후 변화라는 조용하지만 만성적인 위협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법이 제각기 달라 과거보다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먼 미래를 위한 3가지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 섬, 궤도, 커뮤니티: 5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는 변수가 무척 많다. 따라서 (흔히 시나리오라고 일컫는, 일련의 짧은 이야기로 전달되듯이) 선택된 트렌드와 선택, 불확실성이 여러 경로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별로 트렌드와 선택이 어떤 식으로 엮갈려서 미래로 향하는 다른 길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참고로 <시나리오 1>은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로 인해 산업이 예상보다 더 크게 파괴되며 사회분열이 초래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2>는 국가주의가 고조되고 파괴적 기술이 늘어나며 국가 간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3>은 국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분야 관련자들의 도전에 직면하는 시나리오다.

미래 시나리오 1 - 섬: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물리적 안전에 대한 미래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이 업무와 무역을 변화시키며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제와 기술 환경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할 선택을 부각시킨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내부로 눈을 돌리고 다각적 협력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며, 경제 성장과 생산성의 새로운 원천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자 보호주의 정책과 그 밖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섬' 시나리오의 의미] 이 시나리오는 불평등, 선진국의 성장을 저하, 실업, 사회 분열 등을 초래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탐구한다. 여기에서는 부유한 국가가 과거 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부산물에 대처하고, 포퓰리즘과 포용 사이의 긴장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와 혁신을 권장하고, 정보 공유를 장려하고, 양질의 교육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의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재교육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 인재를 유치해서 보유하기 위한 세금, 이민, 보안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가장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발전은 실험과 혁신, 기업가정신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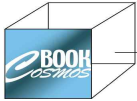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반대로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첨단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국가는 새로운 기술 발전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이런 발전들로 말미암아 기술로 무장한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범죄 행위의 형태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안이 또 다른 핵심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래 시나리오 2 - 궤도: 이 시나리오에서는 긴장의 미래를 탐구한다. 국내에서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경쟁하는 주요 강대국들 때문에 이런 긴장이 발생한다. 이 시나리오는 국가주의의 고조, 분쟁 패턴의 변화, 새로운 파괴적 기술, 세계 협력의 감소 등 여러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위험을 높이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거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선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궤도' 시나리오의 의미]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정학적인 경쟁이 어떻게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위험을 고조시키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지를 살펴본다. 우방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그레이 존(gray zone - 초강대국의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주변 분쟁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분쟁이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강대국 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 자율 시스템, 대(對) 우주 무기, 사이버 작전 같은 새로운 역량들 때문에 계산 착오가 일어날 위험이 고조되는 새로운 확전 역학이 조성된다.

불안한 사건을 일으키고 모든 관련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경쟁 국가들은 위험을 줄이고자 공통 기반을 찾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촉즉발의 상황'(대대적인 군사 충돌이나 대형 자연재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자국 보호를 위해 협력해서 국제 질서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험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계산 착오와 확전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치열해지는 지정학적인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미래 시나리오 3 - 커뮤니티: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심각한 도전이 국가 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여 지방 정부와 민간 분야가 참여할 공간을 창조하고, 그로 인해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며 발생될 문제를 탐구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권력의 본질이나 ICT의 발전과 관련된 트렌드를 강조하는 한편, 더욱 다양한 영향력 있는 관련자를 탄생시키는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미래 거버넌스에 기회와 장애물을 만들어낼지 확인한다.

['커뮤니티' 시나리오의 의미] 이 시나리오상에서 정부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자(도시 지도자와 비정부 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와 더불어 민-관의 파트너십을 권장하는 정책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대기업과 자선 재단이 연구, 교육, 훈련, 의료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할 때 정부 업무를 보완할 수도 있다.

국가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하드 파워'(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의 주요 공급원이겠지만, 지역, 민간, 초국가 관련자를 이용하는 국가와 능력은 '소프트 파워'(정보과학이나 문화·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특성과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분권적인 거버넌스와 민-관 파트너십을 권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 세계에서 활약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집단 의사 결정 방식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통해 대중과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부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독재주의가 팽배하거나 국가가 실패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시나리오가 알려주는 것들

회복 탄력성을 통해 기회를 창조하기: 3가지 시나리오의 트렌드를 검토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세계가 더욱 변화무쌍하리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국가, 기관, 사회는 국민 국가의 위아래 단계에서 체계적인 도전에 적응하고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는 기후 변화, 기술 기준과 프로토콜,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 불평등, 정체성 정치가 불안의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런 도전에 효과적으로 도전하려면 충분한 자원과 능력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도전의 정도는 개별 국가와 국제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괄적인 민-관 관련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 한편 권력과 플레이어가 증가해 더욱 대대적인 파괴와 불확실성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기른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고조시키는 트렌드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부 5년 후 미래 그리고 20년 후의 세계

5년 후 미래 - 지역별 변화

재조정을 위한 변동의 시대가 시작된다: 세계적으로 다음 5년의 특징은 지속적인 불안정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눈에 띄는 조정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두가 환경·생태·기술·기후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도시화, 이주를 경험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개발 성과를 유지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회는 많지 않을 것인데, 중산층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지난 20년의 성과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특히 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국가든 가난한 국가든 거버넌스의 부족이 부각될 것이다. 발전한 정보 기술로 인해 불평등, 세계화, 정치학, 부패에서의 격차가 커질 것이고, 한편으로 굴욕과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시위나 폭력적인 동원을 자극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부를 창조하는 기술이나 금융에서부터 미래의 성장에 부담을 주는 부채에 이르기까지)가 사회 변동의 연료가 될 것이다. 불만으로 인해 포퓰리즘, 이민 배척주의, 국수주의에 빠진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사회가 많아질 것이다. 지속 불가

능한 비용에 직면한 경우, 시민들 간에 서로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사회도 나타날 것이다. 지정학적 권력 중추가 여러 개로 나뉘는다면, 지역이나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이 지역의 오랜 영토와 영해 분쟁은 앞으로 5년 사이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지원 요청을 촉발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와 대응 기제의 성숙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시아의 문제들을 둘러싼 긴장의 악화가 경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면서 투자와 지역의 경제적 협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 증가, 일본의 국방 정책 변화, 대만의 새로운 지도부 등장과 독자성에 대한 의식 증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국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의 결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역 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전략적 기회의 창’을 닫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金正은은 후원과 테러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을 관리할 공통적인 동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호 불신뿐만 아니라 전쟁과 점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악화되고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이권을 보호하고자 이따금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본은 우선적으로 지역 내(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탄탄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여(지역과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한 참여를 늘리고 미국의 강력한 동반자로서) 국제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후부터 안보 정책에 적용되고 있는 제약을 완화시키고 집단 자위권 정책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 깊이 개입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될 경우, 이런 전망은 더 신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인도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키고 야심을 드러내면서, 균형을 찾고 위협에 대비하려는 뉴델리의 의지는 강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군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문제와 계속 씨름하는 한편, 세계화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슬람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에 남아 있는 1차 산림에 대한 주된 책무를 맡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이 민주주의 국가의 인종과 종교 정책 변화는 이 지역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성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 수피교 관행에 점점 더 편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다민족, 다종교 사회의 긴장이 높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과 필리핀은 독재 통치의 방향으로 기우는 거버넌스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지역의 지정학적 관련성 - 활기를 잃은 중국]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중국 경제와 정치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음 5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제의 구조 변화를 이루고, 수출 주도 경제에서 소비자와 서비스 주도 경제로 이행할 것이다. 또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원자재의 엄청난 소비자가 아닌, 보다 균형 잡힌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 발전의 수혜자를 늘릴 수 있을지 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시험은 전례 없이 큰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들 대중은 사회적 불안이나 중국공산당의 통제와 같은 위험이 없는 책임 있는 정부, 사회적 이동성,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최근 원격 감시를 비롯한 고급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회 통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다원주의나 공산당에 대한 다른 정치적 대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적 긴장과 인종적 긴장은 중국 정부가 과거 당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을 수용하고 용인할 능력을 갖췄는지 시험할 것이다. 또 공중 보건이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높아지는 중국의 소득 수준은 생활 패턴을 서구의 소비 기준 쪽으로 이동시켜 비만, 심장 질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엄청난 내적·외적 변화는 앞으로 5년간 남아시아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평화군 축소, 미국과 인도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계획하에서 중국의 서부 개발 목표, ISIL을 비롯한 테러 단체의 진출 등이 모두 영향의 원인이 될 것이다. 남아시아 역시 정치적인 혼란(특히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고투)은 물론, 폭력적 극단주의, 종파 분열, 거버넌스의 결함, 테러, 정체성 정치학, 심화되는 환경 문제, 취약한 보건 체계, 성 불평등, 인구 압력 등으로 인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 지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개발 이익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제 통합과 정치 개혁을 지체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동과 아프리카: 앞으로 5년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두드러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파탄 난 많은 국가에서는 대중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엘리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내전과 대리전이 계속될 것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이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면서 종교 세력들과 정치 세력들 사이의 다툼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다툼에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사이의 안보 경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러시아, 미국도 관련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의 지도부, 엘리트와 대중의 유리가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회경제학적 문제와 일반적 문제들이 악화될 것이고, 독재 통치, 억압, 종속이 이 지역에 남긴 유산들로 인해 특히 쿠르드족과 같은 하위 국가 조직이 훨씬 더 강력한 대의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앞으로 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가 늘어나며, 그 가운데서도 젊은 인구가 더욱 많아지고, 도시화되고, 유동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네트워크가 발전한 곳이 될 것이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식량 자원과 물 자원, 보건 역량, 교육,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경제 성장이 인구를 뒷받침하기 힘든 곳에서의 이러한 조건은 인구 유출의 확대를 낳을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이 지역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토대였던 지정학적·경제적 추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젊고, 도시화·네트워크화된 인구가 경제·정치 역학의 주된 동력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교육을 많이 받고 도시화된 젊은 인구의 증가가 부패,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정부의 형편없는 성과에 대한 불만으로 종교에 의지하거나 시위에 나서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앞으로 5년간 러시아 지도부는 군을 현대화시키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서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외 관계, 핵 무력 과시, 민족주의 강화 등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불확실한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국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시리아에서처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러시아와 같이, 많은 유라시아 정부들은 개혁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좋지 못한 경제 성과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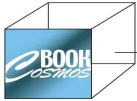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패로 고생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원조, 선전, 군사적·문화적 유대를 비롯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단히 취약하다. 모스크바에 대한 의존, 불안정한 정치 체제, 극심한 부패, 대중 억압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스타일의 붕괴가 일어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5년간 다음의 3가지 변혁적 국면이 드러날 것이다. 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입 증가는 러시아가 세계 권력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수용할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② 우크라이나 분쟁의 해결은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는 EU나 NATO를 통해 자국을 서구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모든 시도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 지역 다른 국가의 반서구 세력도 지원할 것이다. ③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믿고 의지하는 존재였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권 교체는 모스크바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권 교체가 이들 국가의 통치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엘리트의 내분이 불안을 야기하는 등 위기 가능성을 높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

유럽: 유럽은 불안하고 종종 위협적이기까지 한 급속도의 이민 흐름과,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유럽은 앞으로 5년 동안 유럽 프로젝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지역이 세계 GDP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유럽을 형성하는 지역 조직(특히 EU와 유로존, NATO)들은 지금까지 세계무대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브렉시트(Brexit) 투표로 EU가 맞이하게 된 존재의 위기는 최소한 다음 5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 정부가 번영, 경제적 안정, 평화를 공유하도록 도왔지만, 단일 통화로 가기에는 유로존의 재정적 결속력이 부족했다.

더욱이 EU는 모든 유럽인이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이로써 유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동안 구성원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는 민족주의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한편 점차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러시아의 위협,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과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파급된 위협은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고, 동시에 일관된 대응 정책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며, 동시에 일관된 대응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은 앞으로 5년 동안 늘어나는 사회적·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큰 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더 광범위한 번영을 낳지 못한다면 특히 더 그럴 것이다. 미국에서 도미니카 연방에 이르는 북아메리카의 경제국들은 각기 조건과 역학이 크게 다르다. 하지만 이 지역의 정부들은 예산 제약과 부채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안정과 관련해 높아지는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건전성은 이 지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예측은 미국 경제의 성장이 크지 않을 것(이 지역 전체의 성장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의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나뉜다. 7년에 걸친 경기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은 역사적 평균을 근거로 미국 경제가 또 다른 불황을 맞아야 할 시기를 이미 '지났다'고 경고하는 한편, 최근 수십 년 동안은 팽창기(10년 이상)가 길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멕시코의 경제와 사회 개혁 역시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페타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유, 커뮤니케이션, 금융과 같은) 주요 산업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부패 혐의, 지속적인 폭력, 약화된 폐소, 2014년 시위에서 43명의 학생이 실종된 것과 같은 국내적 위기가 많은 대중을 실망시켰다. 멕시코 원유 사업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등의 주요한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선거 운동 동안 강력하게 드러난 반이민 정서는 멕시코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부채질했고, 이는 201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국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멕시코는 북쪽으로 진출하는 데 실패한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멕시코로 와서 머물지 못하도록 남쪽 국경의 통제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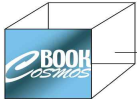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남아메리카: 앞으로 5년간 남아메리카는 경제의 부실 경영, 광범위한 부패,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인한 미약한 경제적 성과, 중산층과 근로 빈곤층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 그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 때문에 보다 잦은 정권 교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이 지난 20년간 빈곤과 불평등 분야에서 거둔 상당한 성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20년 후의 세계 - 주요 글로벌 트렌드

앞으로 20년, 인구의 변화와 불안해지는 세계정세: 2035년까지, 세계 인구는 거의 20퍼센트가 증가한 88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경제국들에서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성장이 중단된 (혹은 감소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의 인구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로 전자는 늘어나는 인구에게 인프라와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고, 후자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노동자들에 대한 니즈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찾는 개발도상국의 이민자들을 무리 없이 통합시키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5가지 인구학적 추세(만성적으로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국가, 대규모 국가 간·지역 간 이주, 인구학적 단계의 이행, 인구 노령화, 다수자와 소수자의 성장 격차 등)가 향후 20년간 국내 안정과 국가 간 정치적 마찰의 원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4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지속적인 정치적 폭력과 정부의 기능 장애로 인해 지역과 지역 외 세력의 개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밀집된 (그리고 관련 정부가 내란을 억누르거나 진압할 능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무장 폭력이 국경 너머로까지 번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구 생태계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연이 유발하는 변화와 인간에 의한 변화가 지구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건강, 식량, 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하여 이전에 보지 못했던 취약성과 요구에 인간을 노출시킬 것이다. 바다는 온도가 높아지고 산성도, 취약성, 오염이 심화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락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은 열파, 한파, 병원체 확산의 역학 변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시기와 지형에 따라 고르지 않게 분포하겠지만, 세계 인구와 생태계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열파(熱波)는 인프라, 에너지, 인간과 동물의 건강,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구성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특히 해안의 메가시티와 이미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을 비롯해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그리고 기후 변화가 영향을 주는 전염성 질환)로 인한 생태·환경적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국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테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혜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와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 기술은 역사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그러나 기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경제, 사회, 정치, 안보의 역학을 바꾸게 될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파급 효과가 큰 일부 기술에 대한 예측(상온핵융합과 같은)들은 처음 예측되었던 시기를 훨씬 지나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멀리까지 퍼진 변화도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생명 과학 분야를 빠르게 전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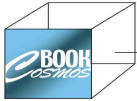
한편 기술 개발과 사용은 도구와 기법에 대한 접근이 쉽거나 그들의 결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ICT)은 자동차에서 제조에 이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생명 공학과 미소 물질의 발전이 다음 몇십 년 동안 비슷한 촉매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새로운 기술들의 결합은 비교적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으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일과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를 들어 생명 공학과 신소재 기술은 에너지 기술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연결성이 심화되고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상이나 정체성은 보다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본국을 떠나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는 것)는 사상의 형성에 점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는 추종자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늘어남에 따라, 공통의 경험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범지구적·초국가적인 유대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상과 정체성의 회복력이 증명될 것이다.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특정 지역에 대한 권력을 주장하려는 곳에서는 민족주의가 눈에 띄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한 역학은 서구 자유주의와 중국이나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반대로, 서구에서는 대규모 이주와 늘어나는 경제적 불평등, 중산층 생활수준의 저하에 대한 반응으로 원주민 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부상할 것이다.

(각각이 현대성의 징후인) 기술의 발전, 성 평등의 확대, 도시화는 가정, 종교, 세속주의, 민족주의, 특히 자유주의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들은 나라마다 다른 기존의 문화 규범에 따라 도덕적·법적·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공동체, 사회, 국가는 인간 생물학 및 환경과 관련된 기술의 잠재력을 다루는 데 얼마나 다른 신념을 택할지 중대한 선택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의견 충돌을 발생시키고, 인간과 인간 집단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나 ‘자아’와 ‘타자’의 정의를 무엇이 규정하는가에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발전은 성 포용성, 도시화 및 정치 참여의 변화라는 사회적 개념의 차이점을 강조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앞으로 20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 다양하게 갈리는 이해관계, 지속적인 테러리스트의 위협, 취약 국가에서 계속되는 불안정하며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내전을 비롯한 분쟁의 위험이 커질 것이다. 분쟁의 수와 강도가 감소한 지난 20년간의 추세가 역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분쟁 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쟁과 연관된 사망자를 비롯한 분쟁의 인적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기술의 발전, 새로운 전략, 진화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배경으로 인해 분쟁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전쟁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미래의 분쟁보다 확산적이고, 다양하며, 파괴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앞으로



20년 동안 전체적으로 4가지 트렌드가 분쟁의 성격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① 모호해진 평시와 전시의 구분 - 미래의 분쟁은 전쟁과 평화로 구분되는 별개의 상황으로 바라보았던 기존 개념을 약화시킬 것이다. 핵무기와 발전된 재래식 무기의 존재가 강대국들 사이의 전면전을 막는 효과를 내겠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의 안보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분쟁은 강압적인 외교술, 사이버 침투, 미디어 조작, 비밀 작전과 사보타주, 정치적 전복, 경제적 · 심리적 강압, 대리전, 기타 군사력의 간접적인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 큰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비국가 집단 -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기술과 무기의 확산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비국가 혹은 하위 국가 집단(테러리스트, 반란군, 사회 운동가, 범죄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종교적 열정과 정치적 이념, 탐욕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이러한 집단들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가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 데 더욱 능숙해질 것이다.

③ 원격 공격 능력의 증대 - 사이버 역량, 정밀 유도 무기, 로봇 시스템, 장거리 타격 무기, 무기를 탑재하고 공중 · 지상 · 해양 · 해저를 항행하는 무인 운송 수단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특히 충돌의 초기 단계에서) 대처하는 양쪽 군대가 직접 부딪히는 전쟁에서 원격 작전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④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새로운 문제 - 앞으로 20년 동안, 핵과 다른 형태의 대량 살상 무기들로 인한 위험이 계속될 것이다. 현재의 핵 보유국들은 2035년까지 자신들의 핵 전력을 (현대화하지는 않더라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핵무기를 전쟁 억지 수단이자 더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대응책, 초강대국의 지위에 이르는 입장권으로 여기고 이를 유지할 것이다. 러시아 군사 정책에는, 러시아의 극히 중요한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지속적인 재래식 분쟁이 위기를 대규모 쌍방 핵 공격으로 치닫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분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앞으로 20년 동안 세계와 지역 무대의 행위 주체들이 미래의 지정학적 상황과 초국가적 테러리즘, 종파 분쟁, 내전, 취약 국가와 같은 안보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내의 경쟁과 광범위한 분쟁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 이란, 러시아는 인근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테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이해관계, 즉 아시아와 중동의 주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항로 편입을 위한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 경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세계적 개편, 그리고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대국과 지역 세력 간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동시 다발적 지역 충돌은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합법적 군사 동맹과 다자간 접근법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